



◆ 미 수은, '상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' 조직개편 계획 발표

미 수은은 상품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기존의 조직체계를 3개의 신설 그룹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. 보다 시장중심적(market focused)이고 고객지향적(customer driven)인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 수은에는 ① 모든 여신업무를 통합, 관리하는 통합수출금융 그룹(Unified Export Finance Group), ② 여신 관리와 감독에 대한 일관성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신용·리스크 관리 그룹(Independent Credit & Risk Management Group), 그리고 ③ 기존의 홍보 기능과 마케팅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 그룹(Communications Group)이 10월 1일자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.

통합수출금융 그룹은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모든 금융상품(단기 및 중장기 대출, 보증 및 보험 등)을 통합 관리하고, 국내·외 각종 지원산업의 발굴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, 중소기업 지원도 담당할 예정이다. 독립 신용·리스크 관리 그룹은 신용등급 분류, 크레딧 리뷰와 준법 감시(credit review and compliance), 국가 리스크와 경제 분석,

기술 및 환경 분석을 포함하는 리스크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. 미 수은이 목표로 하는 '거래규모의 확대와 금융절차의 간소화'를 위해서는 개별 거래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며, 동 그룹에서는 상환의 확실성과 정부 신용을 사용함에 대한 공정성 평가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. 커뮤니케이션 그룹은 기존의 홍보와 마케팅 담당 부서가 통합되어 신설되며, 미 수은의 고객, 주주, 금융시장, 산업 관계자에 대해 미 수은 관련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.

미 수은은 고객에게 좀더 접근하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, 기존의 상품 중심적 조직이 가졌던 복잡성을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한 고객기업에게 요구되는 미 수은의 여신기준 또한 향후에는 전 금융상품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예정이다. 특히, 중소기업은 이러한 미 수은의 일관성 및 접근 용이성 개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【林天一】